2021년 01월 14일

KIWOOM 장 마감을 준비하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Strategist/Market Analyst 서상영 02) 3787-5241 ehdwl@kiwoom.com

한국 증시, 금융투자 수급 주목하며 보합권 등락

한국 증시: 금융투자 수급과 개별 이슈로 보합권 등락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을 맞아 금융투자의 수급에 주목하며 변화. 금융 투자는 한 때 1,6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확대에 따른 베이시스 개선으로 매도세가 축소. 이러한 수급적인 요인으로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에 힘입어 항공, 영화관 등 컨텍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인 가운데 최근 상승이 컸던 반도체 및 자동차 일부 종목의 경우 상승 피로감 속 매물 출회되는 모습도 이어짐. 대체로 시장은 금융투자 수급과 개별 이슈에 따라 보합권 등락

중국 증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매물 출회 지속

중국 증시는 최근 부진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금융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락으로 오전장 마감(상해 종합 -0.29%, 심천 종합 -0.82%). 특히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138명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세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매물 출회 요인. 일각에서는 대규모 봉쇄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업종별로는 의료기기(+1.91%), 디지털 정보(+1.16%), 섬유(+1.31%) 등이 상승한 반면, 항공기 제조(-5.74%), 호텔 관광(-3.47%), 주류(-2.38%), 비철금속(-1.69%) 등이 부진. 테마별로는 소프트웨어(+2.73%), 전자상거래)+1.95%), 로봇(+1.72%), 5G(+1.32%) 등 IT 관련 테마들이 강세

미 증시: 바이든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

1월 20일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 주된 내용은 1인당 지급액 2,000달러 지급, 시간당 임금 인상, 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금액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전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추가 부양책으로 바이든에게 1.3조 달러 이상을 요구. 그러나 관련 내용은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 될 수 있어 중소형 종목들과 금리, 달러화 등의 변화에 주목. 한편, 추가적인 부양책 지급 기일을 살펴보면 바이든은 1월 20일 취임하고 조지아주 상원의원 당선자들은 1월 22일 선서를 하기 때문에 2월 들어서야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미 증시: 파월 연준의장 연설

미국 현지시각 12시 30분에 파월 연준의장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설이 있음. 최근 일부 연준위원들이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한 재조정을 언급하며 금리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이런 가운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브레이너드 연준이사는 여전히 채권 매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책 변경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 특히 클라리다 부의장은 2022년 이전에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결국 연준 내부에서 경기 회복, 경제 정상화 등을 이유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최근 고용지표 둔화 등을 감안 연준의 정책 변화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음. 그렇지만, 채권 재조정과 관련된 발언 하나 하나에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월 연준의장이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 증시: 델타 항공 등 실적 발표

장 시작전 블랙록(EPS +0.92달러), 델타항공(EPS -2.41달러), 대마초 관련 기업인 아프리아(EPS -0.02달러) 등이 실적을 발표(EPS는 시장 추정치). 이 중 델타항공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음. 시장은 델타의 실적은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 할 것으로 전망. 코로나 상황이 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봄 여행 수지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여전히 매출 급감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 많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접종을 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부 국가의 엄격한 검역 요건 등으로 해외 여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

다만, 화물 항공편을 추가했고, 공동 브랜드 신용카드 프로그램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상을 크게 상회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음. 시장은 델타항공의 가이던스를 통해 코로나 회복 시나리오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결과에 따라 컨텍트 관련 종목들의 변화 가능성이 높음